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 세 차례의 위기와 그 대응 -

William J. Perry

I. 서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

오십년전 본인은 한 사람의 젊은 군인으로서 오키나와의 나하港에 상륙했다. 본인과 동료군인들은 일본점령군의 일부였던 제1541 기초조사 공병대 소속이었다. LST가 상륙했을 때 보았던 그 황폐한 광경을 본인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태평양에서 마지막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던 그 곳에는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섬의 남쪽 절반은 동식물이 거의 없었으며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고, 16만의 전투원과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것이 5천만명이 죽고, 그리고 수천만명 이상이 불구 또는 고아가 되거나 집을 잃어버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 경험이었다. 제2차 대전은 미국이 제1차 대전이후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 세대에만 새롭게 발발하였으며, 미국은 제2차 대전의 충격에서 회복하면서 이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위험이 있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세계대전은 지난 번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후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예방하고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에서 우리의 예방적 방위계획은 NA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쟁억제력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아·태지역의 안보 상황은 NATO와 같은 지역동맹이 없고, 유럽과 비교할만한 핵무기 배치도 없기 때문에 유럽과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예방적 방위 계획은 두 지역이 상당히 다르지만 그 중요성은 똑같다. 이러한 안보전략은 본인이 국방장관으로 재직중 1994년 한국에서, 1995년 일본에서 그

리고 1996년 대만에서 각각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위기에 처했었다. 이 세 차례의 위기는 이 지역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한·일과 미국간 동맹관계의 중요성과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군주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고 본인은 믿고 있다. 이 새로운 사고는 다음 세기에 우리의 지역내 군사배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 본인은 여러분들께 이 세 차례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개인적 체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문제의 발생, 해결과정에서 미군의 역할과 그 결과, 그리고 이 세 차례의 구체적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취했던 행동에서부터 그러한 행동이 서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일반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안보관련 행동이 전개되는 동시에 미·일간에는 경제 그리고 기술경쟁이라는 주목할 만한 드라마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제경쟁 그 자체의 중요성은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경제분야에서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안보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이 경제경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안보분야에서 미·일간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이다.

II. 한·미 관계

최근 수 십년간, 북한은 백만이상이나 되는 대규모 군대의 2/3이상을 휴전선 100Km이내에 배치하고 있다. 이 군사력을 약 절반규모의 한국군과 규모는 적지만 위기시에는 신속히 병력을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한미군이 억제하고 있다.

약 10년 전, 북한은 핵을 이용한 발전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용하고 남은 연료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1994년 봄,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재가공하려 하였다. 이는 북한이 핵폭탄 5~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며,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협박용으로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에 대하여 핵개발계획 중단을 요구했으며, 만약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제재에 직면할 것

이라 경고했다. 북한은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이러한 경제제재를 가하려는 시점인 1994년 6월 샬리카쉬빌리(Shalikashvili) 장군과 본인은 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군사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갤브레이쓰(Galbraith)는 “정치란 가능한 것들의 예술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란 비참한 것과 불쾌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과 비핵전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는 것 중 한가지 대안을 선택하도록 제시하였으며,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다시 북한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한 세가지의 대안을 논의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러한 계획중의 하나에 막 서명하려는 역사적인 순간, 북한에 있던 카터 前 대통령의 전화로 회의가 중단되었다.

카터 前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 협상에 동의하였다고 했으며, 수개월간의 어려운 협상을 거친후 북한은 자신들의 핵개발계획을 동결하고 이 지역의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2년이상 그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북한정부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처럼 이 일에서도 복잡한 사항들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 협정의 본질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 기간 중 자신들의 핵개발계획을 동결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전체가 더욱 안정해졌다.

III. 미 · 일 관계

최근 10년동안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안보협력과 기술경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이미 일본과의 경쟁과 협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인은 먼저 양국 기업들에서의 기술경쟁 분야에 관하여, 다음으로 양국 정부간 안보협력 분야에 관하여, 마지막

으로 이것이 다음 세기 일본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90년대 초 일본기업들은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지배했으며, 그리고 일본의 정보기술분야 선도기업들은 미국의 정보기술기업들을 앞서기 위하여 강도높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통산성의 주도로 추진된 전략의 중점은 최첨단기술을 요하는 세 가지 제품에서 앞서는 것이었다. 일본은 메모리 칩, 제5세대(인공지능) 컴퓨터, 그리고 고화상 TV, 이 세 가지가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품이며, 이 제품에서 앞서는 것이 정보기술분야의 다른 모든 제품들에서 경쟁우위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의 여러 기업경영자들도 이러한 접근방법에 동의하면서, 일본기업들이 메모리 칩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에 더욱 주의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다르며, 실제로 많은 일본기업들이 ‘잘못된 말(馬)’에 배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다른 ‘龍’들이 경쟁에 뛰어 들면서 메모리 칩은 이윤이 아주 낮은 상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문제는 10년전에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고화상 TV 시장은 그 성장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 동안 미국의 정보기술기업들은 세 가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매우 다른 방향 즉, 효율적인 워크스테이션과 다재다능한 컴퓨터의 시장확대에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넷 상품의 시장 확대에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통신망, 그리고 다양한 정보기술제품에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발전했다.

능력있는 기술자들과 관리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본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요인들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1) 일본의 전략은 상당부분 정부가 주도한 반면, 미국의 전략은 수많은 개별기업들이 주도했다. 미국정부의 역할은 구체적인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하나의 제품을 지원할 때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 시장에서 그것을 수정하는 힘은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다.

2) 미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기술적 기법들이 뛰어난 기술대학들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었다. 이는 대학연구소에서 새로운 상품아이디어가 나오고, 정보기술분야의 훈련을 받은 새로운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기술기업들과 기술대학들이 밀접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훈련은 적절하고도 최첨단이었다.

3) 미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새로이 창업한 기업은 벤처자본가들과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동적인 자금시장에서 ‘위험자본’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는 이에 상응하는 ‘위험자본’ 시장이 덜 발달하였다.

기술경쟁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미·일간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위기가 1995년에 발생하여 1996년에도 계속되었다. 학자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미·일 안보동맹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동맹관계는 곧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이었다. 주일 미군의 절반이상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에 특히 아픈 부분이었다. 그리고 1995년 9월에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잔인한 성폭행이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다. 이 사태로 인하여 같은 달 하순에 미·일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한 소위 2+2 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오랫동안 미·일 양국정부는 오키나와 문제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으나 이제는 회담의 주제가 되었다. 그 회담에서 고노 장관과 에토 장관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4명의 장관 모두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이 12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그 비극적 사태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앞으로 오키나와 미군주둔 관련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으로 오키나와 관련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발족시키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의 가장 유능한 관리들로 구성된 SACO가 즉시 발족되었다.

본인의 12월 방일시, 미·일의 SACO팀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따라서 본인은 하시모토 수상에게 확실한 행동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시모토 수상은 SACO의 해결책에 찬사를 보냄과 아울러 지원을 약속했고, 미·일 동맹관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중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안보를 재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4월에는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이 도쿄에서 만나 미·일 공동안보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미·일동맹이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주요방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으며, 지역안보 위기사일본의 역할을 규정하는 기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태지역에서 이 합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IV. 미·중 관계

미·중 관계에 있어서 최근 10년의 전반부는 무역과 여행의 증가로 특징지워졌으며, 대만과 중국간 긴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등휘(李登輝) 총통의 미국방문에 이어 1996년 대만의 총통선거 기간동안, 긴장은 매우 증대하였다. 특히 1996년 3월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실시한 적대적 군사연습을 둘러싼 위기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위기는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안보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미·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인가로 나타났다.

1996년 3월, 중국이 첫번째 미사일을 대만 북쪽 수 십마일 지점에, 두 번째를 대만 남쪽 수 십마일 지점에 발사한 날 저녁에 크리스토퍼(Christopher) 장관, 앤소니 레이크(Anthony Lake) 안보보좌관, 그리고 본인은 워싱턴에서 중국의 외무차관을 만났다. 그 회의에서 우리 세 사람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한 목소리로 전했다. 특히 본인은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중국의 행동, 특히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에 빗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즉, 그러한 행동은 실제로 이등휘 총통에 대한 지지표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했다).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다.

2) 미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기술적 기법들이 뛰어난 기술대학들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었다. 이는 대학연구소에서 새로운 상품아이디어가 나오고, 정보기술분야의 훈련을 받은 새로운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기술기업들과 기술대학들이 밀접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훈련은 적절하고도 최첨단이었다.

3) 미국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새로이 창업한 기업은 벤처자본가들과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동적인 자금시장에서 '위험자본'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는 이에 상응하는 '위험자본' 시장이 덜 발달하였다.

기술경쟁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미·일간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위기가 1995년에 발생하여 1996년에도 계속되었다. 학자들은 냉전 종식과 함께 미·일 안보동맹을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그 동맹관계는 곧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이었다. 주일 미군의 절반이상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에 특히 아픈 부분이었다. 그리고 1995년 9월에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잔인한 성폭행이 오키나와에서 발생했다. 이 사태로 인하여 같은 달 하순에 미·일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한 소위 2+2 회담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오랫동안 미·일 양국정부는 오키나와 문제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으나 이제는 회담의 주제가 되었다. 그 회담에서 고노 장관과 에토 장관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4명의 장관 모두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이 12월에 일본을 방문하여 그 비극적 사태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앞으로 오키나와 미군주둔 관련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양국 공동으로 오키나와 관련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발족시키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행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의 가장 유능한 관리들로 구성된 SACO가 즉시 발족되었다.

본인의 12월 방일시, 미·일의 SACO팀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따라서 본인은 하시모토 수상에게 확실한 행동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시모토 수상은 SACO의 해결책에 찬사를 보냄과 아울러 지원을 약속했고, 미·일 동맹관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종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법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안보를 재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4월에는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이 도쿄에서 만나 미·일 공동안보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미·일동맹이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주요방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으며, 지역안보 위기사일본의 역할을 규정하는 기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태지역에서 이 합의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IV. 미·중 관계

미·중 관계에 있어서 최근 10년의 전반부는 무역과 여행의 증가로 특징지워졌으며, 대만과 중국간 긴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등휘(李登輝) 총통의 미국방문에 이어 1996년 대만의 총통선거 기간동안, 긴장은 매우 증대하였다. 특히 1996년 3월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실시한 적대적 군사연습을 둘러싼 위기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위기는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안보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미·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인가로 나타났다.

1996년 3월, 중국이 첫번째 미사일을 대만 북쪽 수 십마일 지점에, 두 번째를 대만 남쪽 수 십마일 지점에 발사한 날 저녁에 크리스토퍼(Christopher) 장관, 앤소니 레이크(Anthony Lake) 안보보좌관, 그리고 본인은 워싱턴에서 중국의 외무차관을 만났다. 그 회의에서 우리 세 사람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한 목소리로 전했다. 특히 본인은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중국의 행동, 특히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에 빗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즉, 그러한 행동은 실제로 이등휘 총통에 대한 지지표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했다).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정례적인 군사연습이라는 중국측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 경험있는 포병장교로서 본인은 목표를 협차포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과소평가 하고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행동으로 위협하고 있는 서태평양지역에 중요한 국가안보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지역내의 이러한 이익을 보호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하여 중국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한다면 정치적인 실패가 될 것이며 중국내에서도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국은 미사일 발사를 반복했다.

살리카쉬빌리 장군과 본인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가를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 우선 단순한 외교적 대응을 고려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의지가 없는 것으로 중국이 오판할 우려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만해협에 미국함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였는 바, 1개함대의 파견은 너무 약한 조치이며 2개 함대의 파견은 불필요한 정도의 적대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일종의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단호함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대만해협 외곽지역으로 2개의 함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클린턴 대통령은 하시모토 수상을 비롯한 역내지도자들과 협의한 후 본인에게 2개 함대를 파견토록 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중국 국방장관의 방문을 연기하도록 했다. 동시에 클린턴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장관에게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하도록 했다.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대로 였다. 함대파견은 우리가 중국의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돌이켜 보면 중국이 우리를 잘못 알았으며, 미국의 함대파견이 이러한 분위기를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또한 역내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바라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 모든 군사적 행동의 구름이 걷힌 후, 대통령은 앤소니 레이크 보좌관을 중국으로 보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과 중국 또한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12월에 중국 국방장관을 미국으로 다시 초청하여 회담을 가졌으며, 회담에서 본인은 중국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한 대과견이 중국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었으며 미국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재확인시켜 주었다.

V. 요약 및 결론

이 세 차례의 위기는 다음 세기에 우리가 직면할 안보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며,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첫째, 우리가 냉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의 종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역사는 보스니아의 마을에서, 쿠웨이트의 사막에서, 한국의 산악에서,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매년 새롭게 쓰여진다. 둘째, 미·일 그리고 한·미간 안보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실제로 이 안보동맹은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급소이다. 셋째, 생산기술이나 기업관리방법이 얼마나 결정적이나에 따라 우위가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미국기업과 일본기업간의 기술경쟁은 생활에서 하나의 동적 사실이라는 점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경쟁과 안보협력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경제적 우위를 얻기 위하여 안보분야의 협력을 접어들 수는 없다. 그리고 미·일 모두 기술경쟁이 안보협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술경쟁을 주저할 필요도 없다. 오늘 본인은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세 차례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설명하였다.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정책 즉, 예방적 방위를 우선하는 우리의 안보방식, 지역안보에 대한 강력한 동맹관계의 핵심적 역할, 보다 강력하고 고도로 준비된 병력의 전진배치를 통한 동맹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제공할 수 있는場이 되었기를 바란다.

토론

질문 오늘의 강연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미국의 태평양지역 방위정책에 대한 당신 생각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제2차대전이 끝난 이래 미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는 많은 쌍방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도 유럽지역의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제가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 문제를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결론은 집단안보체제가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은 지역차원의 협력을 제고하고 지역형식을 확대하면서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NATO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회담과 같이 지역내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합니다. 국방장관들은 동맹이 아니라 공동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방과 협력의 정신으로 이 회담에 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방장관회담이라는 이 제안조차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이유는 중국이 회담에 참가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참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조건을 내건 이유는 중국의 뒤에서 서로 뭉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나쁜 관계를 바라지 않으며, 이러한 조심성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21세기에는 통일한국, 적어도 기능적으로는 하나가 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기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비록 한반도에서 통일이거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주둔조건을 말할 필요도 없이 일정 수준의 미군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군의 전진배치가 단순히 군사적 가능성만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NATO와 같은 지역안보 체제가 없기 때문에, 미군은 이 지역전체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주둔이 서태평양지역 전체의 놀랄만한 경제성장에 불을 지피는 산소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미군주둔이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안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주둔이 없어도 안전보장이 가능할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독일이 통일되고 바르샤바동맹의 침략위협이 사라진 후에 유럽지역의 미군배치에 상당한 재조정과 규모축소가 있었으나, 서태평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약 10만의 미군이 유럽, 특히 대부분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비경쟁을 저지하는 최선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이며,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판단에 동감한다면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입니다. 물론 주둔미군의 배치성격은 변할 것입니다. 국경을 따라 무장된 사단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육군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전쟁억제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한국이 통일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지요? 또, 어떤 여건이라면 미군이 일본에서 철수할 것입니까?

답변 지난 12월 중국 국방장관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언급하면서, 왜 미국이 이 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하는가, 미군주둔이 중국에 위협을 가하거나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위협적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도 중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군주둔의 목적은 중국이나 어떤 나라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

역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군이 안보를 유지함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 5년동안 이러한 안정에서 가장 이익을 본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지역내 군비경쟁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은 중국 국방장관에게 지역내 군비경쟁이나 일본의 재무장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중국 국방장관이라면 미군주둔을 기꺼이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역내 어느 국가에도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실제로 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질문 중국이 경제대국 그리고 군사강국이 되면, 일본이 재무장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한국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페리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며, 북한체제가 얼마나 빨리 붕괴될 것으로 예측합니까?

답변 동맹관계가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며, 급속한 경제성장이나 현대화를 통하여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에 위협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재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국이 현대화를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전쟁준비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3년전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아직도 상당한 규모이며 위협적인 수준이고, 최악의 경제사정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 극적인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체제는 실패했으며 지금 북한에서 현실로 나타난 비참한 경제사정이 그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 전쟁이 발발했을 때를 대비한 한·미 비상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1940년대 이래로 우리는 그러한 비상계획을 준비해 왔으며, 그 계획은 매년 재검토되고 수정되어 왔습니다. 1994년 6월, 북한 핵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비상계획을 수행할 명령권자 및 사령관들과 함께 그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비상계획을 이행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으며, 그리고 바로 그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상계획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선의 계획은 예방입니다. 냉전기간에는 세계 각지에서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국지적 위협은 있으나 세계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존재합니다. 아직도 러시아에는 2만 여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민주사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위협이 위협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년 우리가 러시아 핵무기를 해체하는 데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하여 위협적으로 남아 있다면, 미국은 매우 강력하고도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통하여 북한의 침공을 저지할 것입니다. 전쟁억제가 실패한다면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이 중요하므로 전쟁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과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기꺼이 싸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중단하였으며, 그 계획을 중단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계획이 중단된 시점에서의 북한 상황은 불분명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계획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은 최대한 하나 또는 두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망명자들의 정보와는 반대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질문 그러한 점에서 화학무기의 위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 북한은 수 톤의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했을 때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학무기협정에 서명하고 북한을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을 북한측 승리로 기울도록 만든다거나 전쟁의 결과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지만, 북한이 패배했을 때 보다 심각한 피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